



##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재해 일터

IG전자(주)정보통신 청주사업소-



▲ 박 홍 일 환경안전그룹장

**파**이란 하늘과 푸르른 자연, 그러한 녹음을 더욱 질푸르게 만드는 시원한 빗줄기. 차창을 두드리는 빗줄기와 동무하며 도착한 곳은 검소한 듯 풍요로운 문화의 도시 청주이다.

제37회 산재유공단체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은 'IG전자(주)정보통신 청주사업소'는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사내의 풍경 또한 매우 아름답다.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무재해 일터 도구현된다는 이곳 식구들의 마음이라.

### ■ 무재해, 무질병, 무공해, 무결점, 무화재의 5無 운동

1969년 10월 금성통신(주)의 설립으로 출발한 IG전자(주)는 1993년 10월 공장을 안양에서 청주로 이전, 무재해 운동을 개시하였고, 지난 6월 18일 무재해 12배를 달성하였다.

연이은 무재해 갱신을 위한 IG전자(주)정보통신 청주사업소만의 노하우를 찬찬히 살펴보니 그중 5無운동이 가장 눈에 띈다.



무재해, 무질병, 무공해, 무결점, 무화재가 바로 그것으로, 안전·환경·에너지·보건·경영을 총망라한 EESH(Energy-Environment-Safety-Health)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안전 스텝과 현장이 연결된 안전한 IG전자(주)정보통신 청주사업장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EESH 시스템은 무재해 시간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아차사고 및 중대재해사태 등 재해관련 자료를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 열람 가능토록 하고 위험요인 개선 사례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안전보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한다.

어떠한 작업에서든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곳은 안전교육을 특히 강조한다. 교육만을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 주관의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수강하여 필히 이수토록 시스템화 되어 있고, 신규자 교육이나 비상사태 대응 등 특별교육의 오프라인 교육도 연계하여 배가의 교육 효과를 누린다.



교육은 실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차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IG전자(주)정보통신 청주사업소는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은 물론 건강증진활동, 위험예지활동 등 사업장내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시스템 상태를 점검하고 지적·개선토록 한다.

IG전자(주)정보통신 청주사업소는 부서별로 비상사태 대응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연 2회 이상 조직운영상태를 교육·훈련하고 각자의 임무를 정해 주기적으로 테스트한다. 사업장내 비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나 방재시스템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교육을 통한 오퍼레이터들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초기 대응 시간을 최대한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얼마전에는 약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적인 방재 장비 및 시설을 마련한바 있다.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는 작업시작전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과 지구력 등을 길러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유소견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잊지 않는다. 이외에도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체내 니코틴 함유량을 측정해 금연의 필요







성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금단현상방지를 위한 보조제도 지원해 준다.


또한, 매년 5월이면 현장 근로자들의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폐활량 등 체력 상태를 측정하여 운동처방사가 최적의 체력관리방법을 알려주는 등 안전에 기본이 되는 근로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 노사가 함께하는 신바람나는 회사

IG전자(주)정보통신 청주사업소가 무재해 일터로 이름난 데에는 노조의 활동이 매우 크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있는 최일수 사무장은 매일 현장을 점검하고 스스로 자진하여 안전관련 교육을 받는 등 근로자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재해가 발생하면 가정의 행복도, 회사의 발전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안전 스텝에게 알리고 현장의 잘못된 방향은 올바르게 잡아주는 안전 스텝과 현장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IG전자(주)정보통신 청주사업장에는 신바람나는 회사 만들기에도 적극적이다.

매일 첫째주 금요일은 스트레스 없는 'Oh! Happy Day' 로 지정, 회의나 결재가 없고 직장내 수직·수평간 벽을 허물어 대화할 수 있는 날로 만들고 있으며, 강한 혁신 마인드와 실천력을 가진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학교를 운영하여 자신감 넘치는 행동과 IG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영자, 안전스텝, 현장근로자. 이들이 삼위일체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이곳 식구들의 모습에서 무재해 12배를 이루기 위해 걸어온 그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노력하고 정진하는 모습으로 타 현장의 귀감이 되는 IG전자(주)정보통신 청주사업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인터뷰를 마친다. 

〈성호연기자〉

